제5장 상업 · 금융업

제1절 상 업

1. 포항상업의 성립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의 영향을 받는 상업은 그 중요도가 부각되어 갔으며 시장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발표함에 따라 시장질서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해방과 더불어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의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상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그 비중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해방 후 포항의 상업은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본이 물러간 후 일본인에 의하여 경영된 대부분의 생산공장은 조업이 중단되고 한국인 공장도 원료난으로 생산에 많은 차질을 가져왔다. 따라서 경제현상은 생산 감퇴에 따른 물자난 통화급증으로 물가고로 유통질서가 파괴되어 주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

시장에서는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일반상품은 점차 고갈상태를 면치 못했고, 곡물류의 과다한 출시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소비자의 구매력이 감퇴함에 따라 상거래는 전반적으로 한산하였다.

해방의 혼란기를 틈타 군수물자와 구호물자가 시장에 쏟아져 나와 완전히 뿌리를 내리기 전인 우리경제가 물자난에다 물가고로 경제적인 혼란기를 맞아 상업계에 심한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

한국경제는 당시로서는 미국원조에 의존했기 때문에 파행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더욱 혼란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더구나 6.25전쟁이 발발하자, 피난민이 경북지방으로 몰리기 시작하여 대구를 중심으로 군용물자의 유출품과 밀수품을 주로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이었으나 상업발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그 후 6.25 전쟁으로 인하여 서울을 비롯한 북쪽지방은 북한에 의하여 점령되므로 피난민들이 대구, 부산을 비롯한 남쪽지방으로 피난민이 몰리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대구지역과 포항의 시장은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졌다.

6.25 전쟁 후 경북도내 시장 현황을 보면 중앙도매시장 3개, 상설시장 23개, 정기시장 239개이다. 당시 업종별 점포를 분류하면 도매상은 섬유원품, 섬유제품, 농·수산품, 식료품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소매상은 식품, 의류, 음료, 농·수산 등으로 경공업 중심의 생활필수품을 취급하고 있어 유통구조의 단순성을 지적할 수 있다.

1950년대 말 경북도내 시장현황은 중앙도매상이 대구 2개, 경주 1개인데 포항시와 영일군은 없었으며 상설시장만 포항이 2개로 시장세가 미약하였다.

정기시장은 포항과 영일군의 각각 1개, 15개로 비교적 낙후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1959년 말 통계에 의하면 포항은 3개시장에 거래액이 269,950,000원으로 경북 전체 거래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일군은 16개시장에 1,847,200원에 3.3%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포항시와 영일군이 도시규모에 비해서 다른 시·군보다 상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뒤떨어져 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영일군의 경우는 상주시장 다음 제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거래액에는 제5위로 떨어지고 있어 시장의 영세성을 나타내고 있다.

포항 남빈동 칠성천(七星川) 건너편 냇가에 갈대를 베고 임시로 성토하여 40~50 여개 점포로부터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 죽도시장인데, 관의 허가 없이 시장이 형성되었다. 당시 근대적인 감각을 갖춘 재래시장(在來市場)은 아니나 어류, 육류, 채소류, 일용잡화류 등을 거래하는 곳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서민시장이다.

그 후 죽도시장은 광복 후 현재 장소에서 수십 명의 상인들이 소규모 노점으로 출발하여 차차 성황을 이루어 6.25전쟁까지 400여 각종 도소매점이 즐비하여 형성되었다. 6.25전쟁으로 죽도시장은 완전히 소실되었다.

동란 후 죽도동의 유지들과 이전의 상인들이 부흥회를 조직하여 죽도시장을 탄생시켰다.

죽도시장은 1954년 7월 19일에 경상북도에 의해 상설남부시장으로 정식인가를 받아 면적 9,443평의 규모로 8월 13일 시장을 개시하였다. 이 시장은 흥해, 구룡포, 강구, 영덕, 울진, 울릉 등의 도매상 역할을 하였다.

시장법(市場法)이 1961년 8월에 법률 제704호 제정·공포된 시장법은 시장의 난립과 상거래의 무질서에서 오는 피해를 규제하고 시장체제(市場体制)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었는데 경북의 경우는 시장법에 의해 난립했던 시장이 정리되고 시장의 감소를 보였으나 후반에 와서는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이때 시장구조의 특징을 보면 공설시장(公設市場)이 민영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설시장이 급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2. 포항 상업의 성장기

5.16군사정변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상업계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해 1962년 1월20일 법률 제1000호로써 상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상업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국민경제가 고도성장을 하므로 시장구조의 급격한 변화·확대되었다.

1960년대 시장의 종류를 보면 공설시장과 사설시장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세분할 수 있다. 당시 시장구조상의 두드러진 특징은 공설시장이 민영화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경북의 경우 사설시장이 1962년에 2개에서 1969년에는 13개로 급증했다.

읍·면의 도·소매업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총 수						도매점포수						소매점포수					
	점포수			상시종업원			점포수			상시종업원			점포수			상시종업원		
	합계	법인	개인	합계	무급	유급	합계	법인	개인	합계	무급	유급	합계	법인	개인	합계	무급	유급
총 수	695		695	779	675	104	32		32	79	38	41	663		663	700	637	63
식 료 품	69		69	65	64	1	7		7	2	1	1	62		62	63	63	
음 료	70		70	86	66	20	2		2	15	8	7	68		68	71	58	13
섬유원품	10		10	10	10								10		10	10	10	
섬유제품	8		8	8	8								8		8	8	8	
농수산물	33		33	38	34	4							33		33	38	34	4
의 복	55		55	78	74	4							55		55	78	74	4
장 신 구	5		5	4	3	1							5		5	4	3	1
화 장 품	51		51	61	53	8	1		1	2	2		50		50	59	51	8
의 약 품	64		64	58	54	4	6		6	8	6	2	58		58	50	48	2
화학제품	8		8	8	8								8		8	8	8	
기계기구	22		22	27	22	5							22		22	27	22	5
가구건구	17		17	24	21	3							17		17	24	21	3
건축재료	4		4	13	4	9	2		2				2		2	4	2	2
서 적	10		10	13	12	1	1		1				9		9	11	11	
문 방 구	23		23	21	21		2		2	3	3		21		21	18	18	
자 전 거	22		22	25	20	5							22		22	25	20	5
연 료	24		24	36	25	11	2		2	2	2		22		22	25	20	5
지 류	18		18	40	26	14	1		1	16	2	14	17		17	34	24	
잡 화 점	143		143	132	18	14	8		8	20	11	9	135		135	112	107	5
백 화 점																		
기 타	39		39	32	32								39		39	32	32	

포항은 1941년 3월 개시(開市)된 포항 중앙상설시장이 1960년 4월 23일 도시계획에 의해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시장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60년대 말에 폐지되었다. 공설시장으로 포항의 유일한 상설시장인 북부시장은 1955년 9월에 시장점포를 완비하고 개시하였는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적으로 시장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1966년 말 점포수는 53개 1976년에는 257개로 시장이 번창하였다.

시장의 민영화는 상업발달을 한층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1961년 경북도내 총 21,286개 점포가 있었는데 이중 도매상이 2,888개소, 소매상이 18,398개소였다. 또한 상시 종업원 수는 총 32,102명이며 도매상의 종업원은 7,728명이고 소매상 종업원은 42,011명이다. 한편 영일군의 경우를 보면 위 표와 같다.

1970년대 재래시장 현황

(단위 : 일)

구분 / 지 역	시장명	위 치	시 일	비 고
포 항 시	남 부	죽도동	4.9	상설전환
	북 부	대신동	4.9	상설전환
	중앙도매	대흥동	상설	
	중앙수산부	죽도동	상설	
영 일 군	구 룡 포	구룡포	3.8	
	대 보	구만동	1.6	
	의창흥해	성내동	2.7	(4.9)
	의창가축	중성동	상설	흥해로 개명
	신 광	도성동	5.10	
	청 하	미남리	1.6	
	송 라	광천리	3.8	
	기 계	현내리	1.6	
	기 북	기계면	2.7	
	입 암	입암면	3.8	
	연 일	생지동	상설	상설시장
	대 송	동촌면	1.6	
	오 천	세계동	5.10	
	도 구	동해면	2.7	
	하 성	지행면	2.9	

영일군은 법인체 도·소매점은 전무한 상태이며 개인업체도 기업화되지 않고 구멍가게식으로 경영하고, 자본도 영세하다. 도·소매업의 비율은 0.5%대 99.5%로 소매업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도매업을 할 수 있는 자본의 축적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 종업원들의 봉급도 유급보다 무급이 많아 대부분 점포 운영이 가

족경영에 만족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시 업종분류를 보면 잡화점이 143개 점포로 가장 많았으며 음료 70개, 식료품 69개, 의약품 64개, 의복 55개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생활필수품 위주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성장의 힘을 입어 유통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질·양적인 면에서 성장했다. 유통근대화의 거센 물결이 몰아치면서 백화점, 슈퍼마켓 등 대량유통소매기구가 등장하면서 시장의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는 유통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때는 유통구조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현대화의 물결이 세차게 불어 질적인 성장도 동반하는 시기였다. 더구나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지방의 도로가 포장됨에 따라 소비자는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유통환경의 변혁이 일어났다.

유통산업 사업체수

(단위 : 개, %)

지역 \ 연도	1968	1979	증가율(%)
전 국	278,039	445,847	60.44
서 울	69,744	11,170	59.4
경 북	42,051	60,715	44.4
대 구	18,696	24,961	33.5
포 항	1,149	2,524	119.7
경 주	1,541	2,156	39.9
김 천	1,080	1,401	29.7
안 동	1,090	1,801	70.7

포항은 과거의 정기시장이 상설시장으로 전환되고 도심부에 집중되어 있던 시장점포가 도시의 팽창으로 변두리에 개시되기 시작했다. 상설시장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은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구분되고 판매업자는 시장으로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방적인 판매업자와 일방적인 소비자의 분리현상은 소비자 보호라는 경제적인 사회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포항은 포스코가 가동되면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유통산업이 괄목한 성장을 이룩하면서 상업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위의 표는 전국, 경북 도시별 유통산업체수를 나타낸 것인데 포항시는 전국 증가율 60.44%보다 1.98배이며 대구, 경북도내 어느 시보다 높은 119.7%의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도소매업의 연간 매출액에 있어서도 3,329%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전국평균은 물론 타 도시에 비해 월등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포항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며 포항지역 유통산업의 새로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1970년 중반부터 재래시장의 기능이 급격히 쇠퇴되고 백화점·슈퍼마켓 등 현대적 대형소매점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소비자 구매성향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도·소매업의 연간 매출

(단위 : 백만원)

지역 \ 연도	1968	1979	증가율(%)
전 국	541,064	11,038,393	1,940
서 울	290,057	4,033,054	1,290
경 북	58,316	1,311,198	2,148
대 전	42,116	760,812	1,706
포 항	2,771	95,005	3,329
경 주	1,518	42,013	2,668
김 천	1,118	28,444	2,445
안 동	1,788	64,524	3,509

이러한 경향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의 변화로 소비자 구매패턴이 변함에 따라 포항시는 과거 도매기능도시에서 소매기능도시로 변모되었는데, 재래시장의 대표격인 죽도시장이 동해안 일대 최대도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도소매업의 역할

지역 \ 연도	1976			1979		
	도매업(A)	소매업(B)	(A/B)	도매업(A)	소매업(B)	(A/B)
경 북	161,137	301,882	0.53	375,153	963,045	0.40
대 구	103,004	140,577	0.73	266,539	494,273	0.53
포 항	29,039	23,463	0.85	20,807	74,198	0.28
경 주	3,110	12,938	0.24	9,883	32,130	0.30
김 천	1,414	8,340	0.52	7,638	20,806	0.36
안 동	3,177	14,584	0.56	11,902	52,622	0.22

경북 주요도시의 노동생산성의 신장추이

(단위 : 1,000,000원)

구분 \ 지역	대구	포항	경주	김천	안동
1968	1.22	1.23	0.58	0.57	0.84
1979	14.76	15.72	10.21	10.34	16.94
신장율	1,109%	1,178%	1,660.%	1,714%	1,917%

판매노동생산성의 추이를 보면 경북의 주요도시 중 대구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생산성이란 1인당 종업원의 매출액을 말하는데 유통업체에서는 합리적인 종업원 관리의 척도를 나타내므로 포항지역 업체의 과학적인 경영관리가 요구된다.

3. 유통근대화와 죽도시장의 성쇄

지금까지 국민경제의 어느 부문보다 낙후되어 있는 유통산업은 암흑의 대륙이라 할 만큼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노력이 요구되는 경제부문이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죽도시장은 포항은 물론 경북 동해일대 최대의 도·소매 중심지로 각광을 받았다. 당시 교통사정이 좋지 못해서 대구, 부산, 서울 등지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한 동해안일대 읍, 면 소재지 있는 소매상들은 죽도시장을 도매상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졌다. 특히 영덕 강구, 울진, 구룡포, 청하 등 지역의 도매상 역할을 하여 동해안 최대의 큰시장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1968년 1월 4일 정부는 법률 제3244호로서 「유통산업근대화 촉진법」이 제정·공포되어 유통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나타내면서 유통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재래시장의 대명사인 죽도시장에서는 상인 및 영세상인들의 보호와 권리주장을 위해 1971년 10월 4일 사단법인 죽도시장 번영회를 상공부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어 상인들의 합리적 점포경영과 상인의 목소리,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가교역할과 하는 상인들의 모임이 결성되어 죽도시장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

죽도시장이 오늘날 같이 자리 잡게 된 것은 포스코가 지역에 유치되자 재래시장의 확장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합(조합장 황대봉)을 설립하였던 때부터이다. 그는 1972년 소매결정고시를 받고, 1977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현대화된 상가형 시장으로 변모시켰다. 그는 규모를 기존 시장을 두 배로 확장 조성하여 근대적인 규모의 시장으로 일신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상인들은 새롭게 확장된 죽도1동 593번지 일대의 면적 6,000평, 건평 4,000평 입주한 상가 상인을 대상으로 점포 460개, 회원수 460명, 준회원인 노점상 142명을 포함하는 죽도시장 상가 번영회를 결성하였다. 상가번영회는 이곳의 의류, 채소, 과일, 농산물 판매 상가를 이루어 회원권익 보호 및 회원상호 친목도모와 지방정부 정책에 참여하여 회원을 대변하였다.

1980년대에 와서는 유통산업(流通産業)은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유통산업의 근대화 정책에 힘입어 더욱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 1월 4일에 법률

제3244호로 「유통산업 근대화 촉진법」의 제정 공포는 유통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케 하였다.

1980연대의 시장구조를 살펴보면 정기시장(定期市場)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시(市)는 상설시장화 되고 읍·면은 정기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포항은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축산시장, 농수협 공판장, 농수산 도매시장 농협 연쇄점 등 개설해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있다.

시장의 종류별 분포

(단위 : 개)

구분 \ 지역	포항시	영일군	계
상설시장(일반)	3	11	14
상설시장(백화점)	2	-	2
정기시장	5	-	5
가축시장	-	11	11
농수산공판장	1	-	-
농수산도매시장	1	-	-
농협연쇄점	-	11	11

포항은 1980년 초에 죽도시장, 북부시장 외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영세상인의 생활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동해종합, 대해, 양학, 송도, 새해도시장 등이 개시되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

재래시장 개설은 도시인구의 증가와 아파트가 분산되어 건립됨에 따라 기존의 시가지 인구가 변두리로 확장됨에 따라 주민편리를 도모하기위해 시장이 분산되어 개시되기 시작했다.

당시 죽도시장은 일반 공산품 상가 500여 점포, 회상가 400여 점포, 건어물상가 100여점 등 약 1천160 점포를 보유, 양적으로 급팽창하여 동해안 최대 시장이었으나 전반적으로 시장의 침체를 면하지 못하였다. 또한 주차난, 교통망의 혼잡, 시장 환경 불결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었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젊은층 소비자들의 불만이 노출되어 시장이 해마다 쇠퇴일로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시가지 지역시장들이 개시됨에 따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동네 가까운 시장을 이용함에 따라 고객을 잃게 되었으며 가장 큰 원인은 현대화된 백화점·쇼핑센터에 고객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영업활동이 왕성한 곳은 수협위판장 주변의 회 상가이다. 어시장이 번창하고 있어 포항의 정서를 대변하는 장소로써 서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또 시장의 전문화가 이루어져 발전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대신동에 자리 잡고 있는 북부시장은 인근 학산·동빈 등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재래시장 이다. 이 시장은 발전 잠재력은 있으나 백화점, 할인매장이 출현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시장 현대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횟집을 중심으로 한 어시장을 제외하고는 침체일로에 있다.

1986년 늦게 개시된 상대종합시장은 지역 특성으로 상당한 고객을 확보했으나 인근에 남부, 형산시장이 개설되므로 해마다 고객이 줄어들고 있다. 재래시장은 해마다 고객을 잃어가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쾌적하고 청결한 시장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읍·면에 소재해 있는 정기시장은 급격한 쇠퇴기를 맞고 있으나 지역주민 상대로 지역의 특산물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기시장은 장날이라 하여 지역의 특산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많은 시골사람들이 모여 상품을 사면서 하루를 즐기는 서민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다.

특히 구룡포장은 수산물, 기계 장은 우시장 등 특성 있는 장이 서고 있어 서민경제에 일조는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이 많이 들리는 장으로 소도시는 물론 대도시에서도 몰려드는 특수한 장(場)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개설된 기계의 우리장터는 우리고유의 시장을 재현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옛 청취를 맛보게 하고 있다. 이 장터는 농민들이 가져온 지역의 특산물이 직거래되기 때문에 생산자나 소비자가 싸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어 환영을 받고 있다.

4. 대형유통기관의 출현과 재래시장

포항의 시장분포를 보면 영일군은 정기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포항시는 백화점, 슈퍼마켓, 쇼핑센터, 대형점 등 대형소매기구의 진출이 뚜렷하다. 이러한 현상은 80년대 중반부터 외지 유통업체, 외국업체의 포항진출이 현저히 많아지면서 기존 유통기관을 위협하였다. 포항의 중심지에 산재해 있는 중앙상가는 1970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상가로서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상가이며 고객층이 젊은층과 중산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고급품이 거래되고 있다.

상점가(Shopping street)는 일정지역의 다수상점이 비계획적으로 집적해 있는 점포집단으로서 계획적 쇼핑센터에 비해 흩어진 소매집적 시설이다. 지역적으로는 소매집적의 대표적인 형태로 육거리를 기점으로 기차역까지 걸쳐있는 상가이다. 이 상점가는 고급의류점, 제화점, 스포츠웨어점, 음식점, 제과점 등 전문점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상가로 포항의 심장부라 할 수 있으며 포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호황을 누렸으며 점포세가 고가로 점포입주가 어려울 정도로 상가가 번창하였다. 그러나 중앙상가는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대도시백화점 및 지역백화점에 고객을 빼앗겨 상권이 크게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항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구업체인 동아슈퍼체인이 문을 열어 지역에 진출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였으며 이러한 형태의 슈퍼마켓이 급성장 했다.

포항시내 시장 현황표

구분 \ 시장명	죽도시장	북부시장	송도시장	양학시장
소 재 지	죽도동 2번지	대신동 54-2	송도동 440-6	양학동 41
개설년월일	1971. 11. 2	65. 2. 1	82. 12. 16	81. 8. 5
면 적	9,300평 (30,743.94m2)	2,916평 (9,639.7m2)	338.5평 (1,119m2)	594.4평 (1,965m2)
건 평	3,913평 (12,948.82m2)	1,302평 (4,304m2)	989.9m2)	275.7평 (911.40m2)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목 조 기 타	목조물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1층
점 포 수	549	267	56	42
주거래품	농수산물 공 산 품 생 필 품 기 타	명 종 생 필 품 농수산물	공 산 품 생 필 품 농수산물 기 타	공 산 품 생 필 품 농수산물 기 타
종 류	사 설	공 설	사 설	사 설

구분 \ 시장명	동해종합시장	대해시장	새해도시장
소 재 지	해도동435-2	해도동79-1	해도동60-4
개설년월일	80. 11. 20	81. 7. 18	81. 8. 20
면 적	997평(3,296.21m2)	292.07평(965.52m2)	501.4평(1,657.5m2)
건 평	590평(1,950.42m2)	334.99평(1,107.42m2)	275평(909.67m2)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슬라브1층	벽돌슬라브1층
점 포 수	107	55	50
주거래품	의류, 완구 포 목 전기 제품 신발류, 잡화	공 산 품 생 필 품 농수산물 기 타	공 산 품 생 필 품 농수산물 기 타
종 류	사 설	사 설	사 설

슈퍼마켓은 1980년에서 1986년도까지 전성기를 누리다 1990년도에 와서는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대부분 외국업체나 국내 우수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으로 흡수되거나 경영부실로 문을 닫게 되었다. 편의점은 소비자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편리한 주택가 부근에 입지(立地)하여 24시간 중 편리한 때에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며, 식품과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 편의품을 파는 연쇄점으로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편의점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매장이며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24시간 영업을 하며 시간 편리성을 지니고 재고회전이 빠른 상품을 다품종 소량의 제품계열을 추구하여 상품 편리성을 가지고 지역 구석구석 파고들었다.

1985년 11월 동아마트, 효자 동아슈퍼체인이 1987년 10월, 인덕은 1982년 12월 25일 슈퍼, 쇼핑 등이 문을 열어 소비자의 욕구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포항에 외지업체로 대형소매점인 대구백화점(현재 대백)은 신라쇼핑을 1985년 5월에 인수하여 1987년 9월 12일 개시(開市) 함으로써 포항 유통산업의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동아마트는 인덕, 효자에 슈퍼마켓, 쇼핑센터를 개설하면서 지역의 소매업을 서서히 잠식하여 외지 2대 업체의 매출이 급격히 성장,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분포 추이

(단위 : 개)

구분 / 연도 지역	총수	공설시장		사설시장		수퍼마켓	쇼핑센타	대형점
		상설	정기	일반	백화점			
1980 포항시	535	1	–	2	2	30	–	–
영일군	11	–	11	–	–	–	–	–
1982 포항시	23	1	–	1	4	12	–	–
영일군	13	–	11	–	–	–	–	–
1984 포항시	27	1	–	6	2	18	–	–
영일군	14	–	10	–	–	4	–	–
1986 포항시	67	1	–	9	3	54(1)	–	–
영일군	11	–	11	–	–	–	–	–
1988 포항시	24(2)	1	–	15	6	(1)	–	–
영일군	11	–	11	–	–	–	–	–
1990 포항시	34(3)	1	–	15	3	(3)	–	–
영일군	13	–	13	–	–	–	–	–
1991 포항시	23	1	–	17	5	15	–	–
영일군	13	–	13	–	–	–	–	–
1992 포항시	–	–	–	–	–	–	–	–
읍·면	13	–	13	–	–	–	2	1
1993 포항시	21	–	–	18	–	–	–	–
읍·면	13	–	13	–	–	–	–	–
1995 포항시	34	–	13	18	–	–	5	1
1996 포항시	36	–	12	20	1	–	5	1
1997 포항시	36	–	12	20	1	–	2	1

도소매업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 연도지역	1990		1994	
	포항	전국	포항	전국
업체수	97	16,894	173	26,088
도매	44	9,277	87	15,506
소매	53	7,617	66	10,582
종업원수	1,746	288,248	4,410	480,314
도매	641	162,397	1,259	257,319
소매	1,105	125,851	3,151	222,995
업체평균종업원수	18.0	17.1	25.5	18.4

포항은 1990년도에 와서 도·소매업(都小賣業)이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표에 의하면 1990년에 도·소매 업체가 97개로 이중 도매가 44개 소매가 53개인데 94년에는 업체수가 173개 급증했는데 도매업이 87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종업수에 있어서도 1990년에 1,746명에서 94년에는 4,410명으로 2,5매 증가했다. 업체 평균종업수도 1990년에 18.0명으로 전국평균 17.1명보다 조금 상승했으나 94년에는 25.5로 전국평균 18.4보다 훨씬 높은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어 포항지역 도소매업의 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1990년 중반에 와서 외지업체 대형유통업인 대백, 동아의 진출은 고급화, 다양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소비자를 만족시킴으로써 소비자 만족, 깨끗한 환경으로 매출의 급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재래시장과 영세유통기관은 상대적으로 퇴조해 지역 상인들의 불만 원인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외지업체인 대백, 동아는 1995년의 경우 총매출액의 약 60%정도가 역외유출 되었는데 그 금액이 6백1억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한국은행 포항지점의 조사에서 밝히고 있어 포항지역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유통시장 개방의 큰 흐름은 막을 수 없었다. 포항의 재래시장은 도시외곽의 발달로 인해 소비자 편의에 따라 1990년대 들어서면서 계속 개시되었다.

해도5시장은 1990년 1월 13일 용흥시장과 두호1시장은 1991년 12월 16일에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개시되었으며 그 후에도 상원동에 프라이비트, 지곡동에 신단지 구매시설이 95년에 개설되기도 하였다.

포항재래시장현황

(단위 : ㎡, 개)

상호(명칭)	소재지	개설일자	대지면적	건물면적	매장면적	점포수
북부	대신동63-4	'65. 2. 1	9,630	4,304	4,218	253
구룡포	구룡포읍 구룡포리963-2	'37.12.24	3,161	1,164	1,144	82
흥해	흥해읍 성내리61-2	'65. 2. 1	7,742	2,198	2,178	78
오천	오천읍 세계리830-7	'30. 4.10	5,289	965	941	48
신광	신광면 토성리337	'65. 2. 1	10,374	1,742	1,732	22
청하	청하면 미남리382-2	'65. 2. 1	17,405	1,785	1,785	12
송라	송라면 광천리32-29	'25. 3. 3	1,174	179	171	8
기계	기계면 현내리386-2	'23. 1. 1	3,772	843	835	18
동해	동해면 도구리668-1	'15. 7.30	1,400	181,94	181,94	1
죽장	죽장면 임암리858-34	'19.10. 1	2,651	403	403	18
장기	장기면 임중리333-2	'14.12.15	4,179	574	574	13
기북	기북면 용기리271-4	'58.12.17	2,486	139	139	5
죽도	죽도동2-4	'71.11. 2	30,743	12,948	12,869	559
신단지구매시설	지곡동535	'95. 4.21	5,435	3,241	1,858,2	8
지곡프라자	지곡동166-4	'96. 3. 2	4,627	4,350	2,490,3	16
프라이비트	상원동466-16	'94. 2.28	1,125	3,938	2,114	175
그린종합	장성동25B-1L	'96. 9. 6	22,872	4,777,47	3,543,82	28
동해종합	해도동435-2	'80.11.20	3,296,21	1,947,83	1,527,93	107
양학	학잠동83	'81. 7.29	1,965	1,199,83	1,199,83	42
송도	송도동440-6	'82.12.16	1,119	9,899	903,51	56
청림	청림동588-2	'85. 8. 1	2,053	1,020,35	738,8	43
상대종합	상도동1-12	'86. 5.27	1,655,5	1,591,76	958,2	41
중앙종합	죽도2동625-15	'86. 8.25	1,648	1,577	1,027,6	46
장성종합	장성동866-301	'86. 1. 6	1,091	1,156	892	30
환호	환호동377-5	'86.12.19	2,486	999	925,45	42
남부	상도동629	'87.10.13	1,652,9	1,995	1,592,5	40
장량	장성동866-302	'87.12. 3	1,498	998,46	925,31	39
서부	용흥2동 142-1	'88. 6.10	2,393,7	1,84134	1,461,74	62
두호 1	창포동630	'91.12.16	1,137,7	807	717,7	31
해도 5	대도동413-1	'90. 1.13	1,666,5	1,517,6	789	44
용흥	용흥동366	'91.12.16	3,293,8	6,992,4	4,715,2	146

5. 죽도시장의 활성화와 대형유통기관의 진출

1) 죽도시장의 환경변화

정부는 1998년에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법"을 제정하여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입장에서 볼 때 법적인 진입장벽이 완전히 무너졌다. 따라서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은 국내경제의 글로벌 추세에 힘입어 국내 유통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해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개방화와 각종 규제철폐를 통해 유통산업을 제조업수준에 육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도 유통산업 개방으로 외국 및 외지업체인 편의점은 도심상권을 공동화시켰다. 편의점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매장이며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여 공간편의성을 가지며 24시간 영업을 하며 소비자의 환영을 받으면서 포항지역에 패밀리마트, LG 25, 세븐일레븐 등이 상륙하여 기존의 죽도시장을 위시한 재래시장과 동네 구멍가게를 초토화시켰다.

1999년 9월에 그린프라자(메가마켓), 12월에는 킴스클럽이 입점함으로써 죽도시장을 위시한 재래시장이 급속히 위축되었다.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활성화에 노력하여 정부 혹은 비정부기관에 건의 호소하였으나 별다른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영세상인들이 협력하여 시장 살리기 운동에 적극가담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한편 2000년 11월 10일에는 대형백화점인 경북 제1호점 포항 롯데백화점이 입점함으로 지역민의 소비문화(消費文化)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신소비패턴을 형성하게 되었다. 롯데백화점은 입점한지 얼마 되지 않아 년간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을 돌파하는 등 지역경제의 돌풍을 일으키면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로 인하여 죽도시장의 의류점, 잡화점, 중앙상가의 고급의류 전문점은 타격이 매우 컸다. 그 후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 문화교실 운영을 통해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 얻었으며 지역의 고용 증대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또한 롯데백화점은 지역소비자의 소비문화 향상과 더불어 상품구매의 시간절약, 비용절약을 위한 합리적인 쇼핑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대형유통 기관이 포항지역에 진출함으로써 죽도시장과 중앙상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포항은 물론 전국적으로 정부는 지역 재래시장 살리기 정책을 시행 하였다. 포항시는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 살리기 타스크포스 조직을 하여 지역상가의 애로점,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포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포항대학 사회경제연구소에 의뢰하여 <죽도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연구책임자 한영광)이란 연구보고서를 제출케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장·단기적 대책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이것을 토대로 상인대학을 개설하여 상인들의 서비스교육에 힘을 썼으며 각종시설 보완을 했다.

용역을 토대로 전국 최초의 상인대학을 개설한 죽도시장은 상인을 상대로 상도(商道)를 가르쳤다. 강의내용은 대형유통기관들의 진출에 대응한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전한 소비풍토를 진작시키며 판매전략 정보교육,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통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가르쳤다.

포항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재래시장인 서민의 시장인 죽도시장이 생존의 위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도시장의 어시장은 기존의 포항수산합자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어물 냉동어물 등을 처리하여 어시장에 신선한 어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상가 건어물 등은 경쟁력 있는 시장이다. 1998년 10월에는 회상가번영회를 결성하여 회상가의 번영을 위해 회원간의 친목과 화합 결속을 도모하며 나아가 죽도시장을 찾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회원업소는 500개 이며 죽도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2) 죽도시장 활성화 방안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현존하는 공간구조의 틀 속에서 도시 주민에게 균등한 구매의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죽도시장도 주거지 분화가 심화된 현재의 도시구조 속에서 계층에 관계없이 근거리 구매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통시설이라야 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죽도시장은 적지이다.

재래시장의 특징인 일상생활용품이 일괄구매가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콩나물과 장미꽃, 병아리처럼 완전히 이질적인 상품을 몇 걸음 옮기지 않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죽도시장의 물건 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야 한다. 죽도시장의 물건 값은 백화점, 마트, 구멍가게 보다 싸야 한다. 그러므로 중·저소득층에게는 재래시장이 꼭 필요한 유통업체라 할 수 있다.

죽도시장은 속칭 브랜드가 없는 중저가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데 그러한 중저가 제품의 생산자는 주로 중소기업이다. 재래시장은 결과적으로 넓게는 국민경제, 좁게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이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지역에 재래시장이 입지함으로써 일종 커뮤티니(community)센터 역할을 한다.

지역민들 간의 만남과 교류를 매개하는 사회적의 오픈스페이스가 형성되어 왔다.

서구(西歐)의 광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단순한 상품교환의 장(場)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는 시설 현대화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철거 재개발은 영세상인들에게는 투자와 위험부담이 요구됨으로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죽도시장의 활성화는 재개발 재건축의 현대화 방안이 아닌 시급히 기존시설을 개선·보완하는 단기적 방안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죽도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현재의 여건에서 주어진 죽도시장의 활성화 방향이다.

죽도시장은 오랜 역사를 가진 시장이며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상징적인 공간이 되어 왔던 시장으로써 전체적인 외부형태는 가능한 그대로 유지한 체 대형유통업체와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시장운영, 구조문제, 영업실적, 경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이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첫째 상인의식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시장이 직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벤트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시장조직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시장번영회를 중심으로 시장상인들은 소극적 관리체제의 범주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운영체제로 정비해야 한다.

셋째로 경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지역 가까운 곳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상 경쟁우위에 있으나 단순히 거리가 가깝다는 것만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거리는 생존을 기약할 수도 없다.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상품개발과 머천다이징의 강화 및 전문시장의 경우 고유상품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활어시장, 건어물시장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이벤트, 테마관광, 축제 등을 통해 잠재고객을 계발하고 유지하며 죽도시장 고유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대형 유통기관 진출

죽도시장과 더불어 중앙상가 상인들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축제들을 통해 경기회복 이벤트행사를 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IMF 이후 경기는 더욱 위축되어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고객유치에 나섰으나 매출액 증가는 찾아볼 수 없었다.

킴스클럽 대형점이 1999년 12월에 포항역 앞에 개설됨에 따라 중앙상가는 더욱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몇 년 후 킴스클럽도 다른 대형백화점 마트가 도심에 벗어나 개설됨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포항지역 대형 유통업체 현황

(단위: ㎡, 평)

구 분	상호(명칭	소재지	개설일자	대지면적 (㎡)	건물면적 (㎡)	매장면적 (㎡)
백화점	롯데백화점 포항점	북구 학산동 127-9	2000.11.10	68.899	68.603	21.309
쇼핑센타	효 자 쇼 핑 세 타	남구 효자동 20-1외	1987. 3.24	19.230	8834.5	3.016
	대 백 쇼 핑	북구 죽도동 48-27	1988. 1. 8	1,993.1	10.426	6.187
대형점	화 성 산 업 포 항 점	남구 상도동 18-263외	1988.11.18	804	3,228.5	1,888.6
	그린프라자(메가마켓)	남구지곡동481-1	1999. 9. 2	9,667.6	3,956.9	3,0014.5
	대 백 D 마 켓	북구 죽도동 50-1	2001. 1.11	5.089	4.008	2.807
	킴 스 클 럽	북구 대흥 618-20	1999.12.24	1,500평	1,200평	1000평
	향토마트(세라프)	남구 연일읍 생지리 408	2001. 9.26	7.134	4.885	4.885
	삼 성 홈 플 러 스	북구 죽도동	2002	52,294	8,994	
	신 세 계 (E 마 트)	남구 인덕주택단지 내	2001.12.13	43,747	27,402	
	L G 유 통	북구 죽도 607-1	2002	5,247	2,708	
	인 터 밀 라 노	북구 대흥동 593-12 외 5필지	2001	1,615	8,166	
	롯 데 슈 퍼	북구 죽도동 오광장	2006. 5.21	5,620		34000평
	롯 데 마 트	남부 지곡	2004.12. 1			340평
	월 마 트	남구 대이동	2004. 9.18			2411평
	홈 에 버	남구 대이동	2007			2369평

한편 서울 동대문, 남대문에 있는 현대식 경영기법으로 운영한 의류판매 업체인 인터밀라노가 중앙상가에 개점하였으나 경영상에 문제점이 야기되어 폐점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차 없는 거리에 실개천을 개설하여 젊은 고객을 확보하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고급상품을 찾는 고객은 없는 실정이다.

지역 국회의원, 시장, 기업, 사회단체는 지역상인을 위하여 재래시장 상품권구매하기운동 등으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였으나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역부족이었다. 가격파괴, 시간파괴, 유통경로 파괴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할인점인 신세계 이마트, 삼성 홈플러스, 월마트의 포항진출은 재래시장과 중앙상가, 동네구멍가게 등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특히 거대한 자본으로 진출한 신세계 이마트, 월마트의 개점 초기에는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인근교통이 마비될 정도였으며 판매촉진 활동도 엄청나 기존의 상권의 거래를 흐려 놓기도 했다.

그 후 우후죽순 격으로 대형 유통업체 밀려들어 오기 시작하였는데 죽도동에 LG유통 지곡동의 롯데마트 등이 포항 진출하여 지역의 재래시장에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 후 월마트는 포항에서 철수하였으며 이마트에 흡수되었다.

포항의 중심가인 죽도동 오광장에 롯데슈퍼가 2006년에 들어서면서 유통산업의 새로운 형태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대이동에 입점한 홈에버가 노사문제로 문을 닫게 되었다. 홈에버는 나중에 홈플러스에 인수되었는데, 포항지역 유통기반은 대부분 외지 업체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6.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상공회의소는 1952년 12월에 제정・공포된 상공회의소법에 의거 설립・운영되고 있는 법정 경제단체이다. 상공회의소는 지역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역의 상공인을 대변하며 대정부 건의사업을 실시하고 때에 따라 지역민 숙원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민의 여론수렴과 지역 문제점,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거나 용역을 발주하여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냈다.

1) 포항상공회의소의 혼란과 재건

조선상공회의소 포항지부는 여천동 회관에 간판만 걸고 별다른 활동 없이 지냈다. 1945년 9월 8일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남조선 과도정부를 수립 후 11월 1일 조선상공경제회가 일제의 전시 경제체제에 협력한 단체라는 이유로 이를 폐쇄하고 그 재산은 적산으로 접수했다.

서울의 경제인들은 1946년 4월 3일 조선상공회의소 설립, 발기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미군정 당국에 설립인가를 추진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조선상공회의소는 전통과 한국인의 정통적인 자주적 연합체이며 그 회원 구성에 있어서 엄연히 한국인 측이 다수로 조직되었다는 것이다.

경제인 노력으로 상공회의소는 재건되어 4월 5일 구용서, 민규식, 최두선 등 22명으로 조선상공회의소를 설립, 발기인회가 조직되었다. 1946년 5월 19일 전국 각 시도 경제인 대표들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하였다. 당시 포항에서는 수산업을 경영하고 과거 일제강점기에 상공회의소 임원이었던 김두하가 참석했다.

1946년 6월 30일 김두하가 주동이 되어 포항극장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순수한 한국인에 의하여 포항상공회의소를 재발족하게 되었다. 이때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제정하고 회두에 강주석을 선출하였다.

1949년에는 2대 회두에 박정원을 선출하였는데, 당시 재정이 어려워 활동이 저조하여 그 명맥만 유지해 오다가 6.25전쟁으로 여천동 회관마저 파괴되었다.

상공회의소가 공법인으로 된 것은 1952년 11월 13일 민의원 본회의에서 통과 되고 동년 12월 20일 공포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상공회의소는 그 후 포항상업의 재건을 위한 유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산상태에 이르렀으며 1953년 10월에는 정부의 설립인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1954년 3월 4일 상공인 박정원 외 30명은 발기인회를 조직하고 동년 2월 7일 포항시청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포항상공회의소 재 설립을 위하여 만장일치의 결의로 정관과 사업계획 및 예산을 통과시켰다.

1954년 3월 4일에 상역 제2873호로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게 되었으며, 4월 6일에는 공법인으로 초대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정원수 20인이 등록함으로써 무투표 당선되었다.

1954년도 상공회의소 업종별 회원 현황을 보면 기타가 365개, 식당 176개, 음식 84, 곡물업체 77순으로 되어 있었으며 법인 15개, 개인 1,264개로 개인업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당시 회장에 최기봉, 부회장에 장봉환, 엄용수 등이 선출되어 포항 · 대구 직통열차, 포항항 개항장 지정, 서민금융기관 설립 건의 등을 비롯해 각종 조사활동을 하였다.

제2대 의원의 구성이 1957년 4월 5일에 이루어졌는데 회장 오실광, 부회장 이인도 등이 선출되었다. 2대 의원들의 사업과 활동을 보면 포항 · 대구, 포항 · 부산 직통열차 증설운행, 특별행위세 면제, 국고금취급권을 시중 전 은행으로 확산, 중앙통 도로변 야시장 개설을 위한 가로등 시설 건의 등을 중앙요로 및 시 당국에 요청을 하였다.

당시 상공회의소는 전문적인 기능 발휘를 위해서 상역분과, 수산업임광공분과, 재정금융분과, 홍보분과, 특수분과, 징계분과의 위원장 선출과 위원들이 분과별 조직에 참여시켜 조기에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업종별 회원현황

(단위 : 개)

업종명	업체수	업종명	업체수	업종명	업체수
곡물	77	자동차수리	13	두부	1
음식	84	철물점	15	도자기	2
식당	176	고무신	8	라디오	4
직물	69	문방구	6	목공가구	3
과자빵	29	선박	7	목욕	2
도정업	28	연탄	9	세탁	1
선어	41	용접	7	수예	1
이미용	32	인쇄	7	엿	2
양복수리	40	양화	7	주점	3
여관·하숙·여인숙	30	제재소	7	토건	3
주류	27	기계철공소	1	함석	2
철물점	15	간판	2	전기기기	3
탁주제조	32	기계수리	1	기타	365
한약양약	20	건재	2		
식육점	14	가방	3	계	1,264
사진	12	농기구	2		
시계점	14	다방	2	법인	15
유류	11	타이어수리	3	개인	1,264
연초	18	도장	1	계	1,279

제3대 의원의 구성은 1960년 3월 5일 이루어져 회장 오실광 등이 선출되어 운영되어오다가 5.16군사정변으로 3대 의원총회는 해산되고 「상공회의소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개편을 단행하게 되었다.

1961년 8월 18일 업종별 의원선거, 동년 8월24일 제4대 의원의 의원총회에서 회장에 김성기, 부회장에 김용한, 최헌정 등이 선출되었다. 그 후 김회장의 사퇴로 최부회장이 회장직무 대리를 하였다. 당시 사업으로는 포항항 개항장지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유지들의 성금이 답지되는 등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개항의 결과를 보게 되었다.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오실광에 의하여 지정축하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962년 7월 5일 각종 행사를 행하였다.

제5대의원은 1964년 7월에 선출하고 동년 8월1일 임시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었다. 당시 회장에 오실광, 부회장에 이상일, 문영석 등이 선출되었으며, 각종 건의, 진흥사업으로 주산기능자격시험, 부기검정기능시험을 실시하여 사업기능 신장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였다.

1967년 2월 3일 포항·영일 지구에 종합제철 유치를 위한 「동해지구개발협회」가 구성되어 회장에 상공회의소 회장인 오실광, 부회장에 김형섭(포항), 정명방우(포항), 이정기(영일), 이달환(영일)가 선출되어 사무실을 상공회의소에 두고 청와대 등 관계요로에 수십 회 건의하고, 동해지역주민 50만 명의 연판장을 받기도 했다. 그 결과 7월 7일 포항이 입지선정 도시로 결정되었는데 포항상의가 그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 후 7월 12일 제6대 의원을 선출 공고를 하고 7월 16일 임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제6대 회장에 오실광, 부회장에 정일봉, 이영재 등이 선출되었는데, 포항종합제철 공장설립확정 시민환영대회 개최와 상공인의 숙원사업이었던 회관준공을 보게 되어 포항상의에 경사가 한꺼번에 몰려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2) 성장기

전술한 바와 같이 포항상의는 포항공업단지에 포항종합제철(주)을 위시한 연관기업들의 입주에 따른 회원 증가로, 상의 발전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여 활발한 사업이 전개되었다.

1970년 7월 5일 개정된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업종별, 특정, 일반의원, 그리고 7월 7일에는 특별의원과 임원이 선출되었는데 회장 오실광, 부회장 정일봉, 백성계 등이 선출되었다. 그 후 오회장의 일신상의 이유로 회장을 사퇴함으로써 정일봉 부회장이 회장으로 보선되었다.

사업내용으로는 포항항 축조 및 준설, 주택은행 지점유치, 포항·우회 도로포장 등을 건의하였으며 진흥사업으로 상점미화 경진대회를 조사업무로 영세기업 지원 대상업체 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의 다양화에 주력하였다.

제8대 의원의 구성이 1973년 7월 9일에 이루어졌으며, 제8대 회장에는 강신우, 부회장에 최승해, 황대봉, 감사 이인식, 강영진이 선출되었다.

당시 포항제철의1기 설비가 준공이 되어 조강년산 103만톤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연관기업들의 많은 입주가 되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는 물론 상의활동이 더욱 박차를 가해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포항상의의 가장 큰 사업으로 시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관계당국에 건의하는 것인데, 한국은행의 포항출장소 설치, 포항·구룡포 도로확장, 송도 해수욕장 폐쇄 반대, 산업로 개설 건의와 같은 사업을 설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진흥사업으로 ≪포항상의≫창간호를 1974년에 발간하여 포항지역의 경제발전의 기초자료로 이용, 기업 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업시찰, 세무강좌, 상공인 간담회 등 새로운 진흥사업을 전개하여 성공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제9대 의원선거는 1976년 6월에 실시하였는데, 의원 정수만 등록하여 전원이 무투표 당선이 되었다. 회장에 강신우, 부회장에 정이엽, 최승해가 선출되어 계획된 사업 연계를 도모하였으며 회 발전에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당시 포항시는 포항제철(주)의 550만톤 시설 완공과 연관기업의 안정적인 기반이 조성되어 인구팽창에 있어 안정적인 추세에 돌입하였으며, 경제적으로 호황기에 있었다.

상의활동으로는 구항확장, 축조, 관광버스 증차건의, 4년제 대학설립, 야간여고 설치 등 상공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 다양한 건의를 하여 그 영역을 확대하였다.

진흥사업으로는 경영자 연수교육, 산업시찰 안내 등으로 업무가 확대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상공업자 실태조사, 정기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학적 경영관리에 관심을 두었다.

1979년 4월 29일 제10대 의원을 선출하고 5월 2일에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전임회장인 강신우가 다시 선임되었으며 이후 11대, 12대 연이어 회장에 당선이 되는 영광을 가졌다.

1979년 세계적인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 불황과 정국의 불안으로 경제계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포항시 또한 포스코의 건설공사가 마무리됨으로 해서 인구 증가의 둔화, 경기의 퇴조가 역력히 드러났다.

상공회의소에서는 포항항만 확장, 한국은행 포항지점개설, 포항·서울 간 항공개설, 4년제 대학설립, 경북도청의 포항유치 등 큰 사업을 설정하고 건의하였다.

그 노력의 결과로 한국은행 포항 지점개설, 포항~서울 간 항공로선 개설, 4년제 공과대학설치 등 이 결정되어 포항상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

1980년 초, 포항상의는 불황타개책과 새로운 포항시의 개발방향을 유도키 위하여 최초로 포항경제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포항경제개발 방향”이란 심포지엄을 통하여 포항은 대구의 직할시 승격에 따라 포항이 경북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고 경북의 중심도시로 변신해야 함을 제시하여 상공인은 물론 지역민에게 상당한 공감을 일으켰다.

또한 진흥사업도 기업경영 합리화 지도사업, 기능 보급사업, 수출진흥사업, 국제친선사업을 통한 국제화 시대의 적응도를 거양하는 사업을 행하여 포항상의의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고 포항지역 상공인들의 미래를 제시하였다.

한편으로, 80년 중반에는 경제여건과 시대가 급진적으로 변화함으로 인한 업무 수행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4년 12월 12일 새건물을 신축하여 상도동 10-2번지 및 대도동 93-1번지 소재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 포항상공회의소 전경

3) 도약과 변혁기

상공회의소가 현 위치에 이전되면서 각종 연구와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와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차원 높은 사업을 전개하였다.

제8대부터 제12대까지 15년간 연속 회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공적을 남긴 강신우 회장 퇴임 후에는 제13대부터 제16대 중반까지 타의 · 자의로 퇴임하는 회장이 여러 차례 물러나게 되는 우여곡절을 겪는 격변기였다.

가장 큰 변혁은 1952년 12월 20일 공표된 상공회의소법으로 회원자격을 '상공업을 하는 자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된다'라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9년 1월 29일 국회에서 임의 가입제도제로 개정,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이 변경되어 회원 유지 확보에 많은 애로가 노출되어 상공회의소 운영이 벽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상공회의소 존폐 위기까지 대두되기도 하였다.

다행이 정부도 동법 개정의 졸속성을 인정, 2002년 2월 28일 회원의 자격을 상공업자 중 일부 대기업은 당연제로 영세상과 소기업은 임의 가입제로 재개정 공포함으

로써 위기를 넘기게 되었으며 국제적 조직을 가진 민간 종합경제단체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1988년 4월 6일 제 13대 회장은 성립기업의 박성록이 선출되었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동년 7월 22일 사퇴하는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났다. 이러한 사태는 처음 있는 사건으로 상의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임시총회를 열어 주성원 의원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제14대 회장으로 광명레미콘의 주성원사장이 선출되었는데 왕성한 활동하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1992년 2월에 윤종구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하였다.

상공회의소 총회는 7월 24일 의원총회에서 김봉우 의원이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1992년 4월 24일에는 포항의 비전을 제시하는 "환동해 중심도시로서의 포항권 개발방향"이란 심포지엄 개최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공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당시 이 심포지엄을 통해 '환동해'란 용어를 공식화 하는데 공헌하였으며 연구를 가장 왕성하게 실행한 회장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포스코 철강생산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포항지역에 자동차, 조선업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포항미래를 제시한 국제 심포지엄인 "환동해 경제발전 전망과 동해안 교통체계 개발방향" 이란 제목으로 개최된 발표장에는 러시아, 미국, 중국, 캐나다 등 국가에서 학자가 2일 동안 발표, 토론하여 포항이 환동해 물류거점도시, 과학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심포지엄은 1994년 4월 22~23일간 시그너스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동시통역을 포항에 처음시도 하였으며 영문판을 제작하여 정부요로 및 외국인에게도 배포하였다.

제15대 의원선거와 회장선거를 1994년 3월 14일에 치렀다. 김봉우 회장이 재선되었으나 1995년 5월에 회장을 사임하였다. 그 후 김길중 회장이 잔여임기를 채우고 제16대 새로운 회장으로 당선되어 심기일전하여 각종 사업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포항 MBC와의 "개방화시대의 환동해 발전과 선택", "경북 동해안 발전과 기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IMF 극복을 위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모색하였으며, 지방의회와의 토론의 광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1998년 6월 김길중 회장의 갑작스런 퇴진으로 이무형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그 후 2000년 2월에는 이무형회장이 재선되어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침체되었던 포항지역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 '환동해 발전의 재조명'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포항MBC와 공동주체 하여 IMF극복방향과, 디지털경제시대에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지역기업의 전자상거래 교육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기업 경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8대에는 최무도 정화식품 사장이 회장으로 무난히 선출되었다. 최회장은 상공회

의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갔으며 인화에 치중하였다. 특히 침체일로에 있는 대구・경북지역 통합을 통한 지역발전 방향에 역점을 두고 대구・경북 발전 모색에 상당한 노력하였다.

제19대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선거는 과거 볼 수 없었던 치열한 선거에 돌입하여 대접전 끝에 최영우 회장이 당선 되었다. 최 회장은 선거 후유증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잘 수습하여 안정된 업무 수행을 했다. 2009년 5월 제20대 회장선거에는 무투표 당선 되는 등 대과없이 회장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기업애로사항의 종합적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기업애로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임기 중 처리 건수는 72건을 처리하였다. 회원지업 사업을 강화, 지역에 저명인사 초청, 조찬간담회를 개최, 회원업체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하였다.

지역현안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려 경북 한・미FTA포럼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지역 글로벌화를 위해 대구・경북・부산・울산 경남지역 5개 광역 상의의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국회의원을 방문, 울산~포항~삼척간의 고속도로 건설, 동해중부선 조기건설, 포항~서울간 KTX노선 개설 등 지역의 SOC시설,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건설추진을 하고 있다.

포항의 미래를 위해 대구・경북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 지정, 포항자유무역 지역지정에 기여했으며, 한국은행 포항본부 존치에 앞장서 성공을 거두는데 일조를 하였다. 현재 최영우 회장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1인당 시간가치 증가로 인천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기업인들의 사회경제적 비용증대에 대응책으로 동남권 제2의 허브공항 필요성에 대한 공항 입지선정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 국제공항 추진위원회 공동 회장으로 국제적인 하늘 길을 여는데 주도하며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 최회장은 산업평화와 노사안정을 위한 전국 최초의 노사발전협의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포스코 민노총 난입사태, 화물연대 파업사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노사평화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상공인들이 존경받고 예우 받는 풍토조성과 지역기업사랑운동과 기업의욕을 고취 시키고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포항상의는 포항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한 비전 계획과 상공인의 기업경영의 길을 열어주고 지역경제 분석을 통한 기업의 경영전략에 일조를 하는 상공회의소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영일만항이 개항됨으로 포항상의는 미래 포항경제 이끌어갈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경제를 재단해 상공인과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제2절 금융업

1. 포항금융의 형성기

영일군 금융조합의 조합원은 1909년 288명에서 1928년에는 738명으로 증가했다. 포항의 일반시중은행은 포항면 포항동 759-1에서 대구은행 포항지점이 1921년 11월 10일에 설립된 것이 최초이다. 이 은행은 후일 대구은행, 경남은행, 경상은행이 합병되어 조흥은행으로 개편되었다.

해방 후 한국경제는 정치혼란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것을 경험했으며 문란한 신용질서로 금융 조직이 허술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제도의 근간인 중앙은행과 일반은행의 체제를 확립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50년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제정·공포, 한국은행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 후 기존의 식산은행을 개편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 농업제도 정비를 위해 농업은행을 1956년에 설립하였으며, 민간자본을 동원하기 위해 지방은행인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의 은행을 설립했다.

우리나라 은행업은 해방 후 많은 혼란을 거듭하면서도 꾸준히 발전하여 왔으나 6.25전쟁으로 금융업이 위축되었다.

포항은 전쟁 중 조흥은행 포항지점이 전소되었으며 한일은행 포항지점의 전신인 조선무진공사 포항지점이 전소되어 전란의 피해가 격심했다. 전란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결과, 조흥은행 포항지점은 1957년 12월 28일 시내 중앙동 758-2에 신축, 업무를 확대 개편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한일은행 포항지점도 이전 신축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에 총 구수는 9,203개에 예금액이 574,800,536환이며 총 구수 1,935개에 대출금은 2,235,789,538환으로 예금액보다 대출금이 389%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농업은행을 통한 농촌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포항도 1960년에 들어서면서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일은행의 지점이 개설되어 지역금융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 후 포스코의 가동 후에 연관기업들이 포항지방에 진출함에 따라 서울, 대구, 제일, 주택 등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금융업체가 포항에 지점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은행별 예금대출현황

구 분 / 은행명	예 금		대 출 금	
	구 수	금 액	구 수	금 액
계	9,023	574,800,536	1,935	2,235,789,538
조흥은행 포항지점	2,033	365,283,236	200	307,434,964
한일은행 포항지점	980	162,171,587	106	358,287,044
농업은행 포항지점	6,190	77,345,713	1,629	1,570,067,530

무진회사는 한편 총 103개에 미지급액은 171,083,100환으로 서민층의 무진회사의 이용도가 높았다. 이로 인한 영세기업의 자금조달에 원활화는 기하였으나 금융사고가 빈번하여 서민층에 많은 물이를 일으켰으며 고리(高利)로 서민에게 폐해가 많았다.

무진회사 현황

구 분 / 회사명	급부구		미급부구	
	구 수	금 액	구 수	금 액
한국무진 포항지점	260	90,849,500	275	67,023,100
대구무진 포항지점	222	69,190,000	328	104,060,000
계	482	156,039,500	603	171,083,100

1962년 10월에 중소기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은행 포항지점이 개설하게 되었다. 무진회사를 통합한 국민은행 포항지점은 1963년 2월에 점포를 개설하게 됨에 따라 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서민가계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

은행별 예금 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은행명	예 금	대 출
조 흥 은 행 지 점	102,871	72,088
한 일 은 행 지 점	80,784	597,819
국 민 은 행 지 점	79,531	93 615
중소기업은행 지 점	66,725	160,503
계	329,915	924,025

포항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6년 은행예금액은 329,915천원이며 대출은 924,025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60년과 비교하면 예금은 602%, 대출은 4.132% 증가추세에 있어 포항 금융 산업의 양적발전을 말해 주고 있다.

1965년에 이르러 포항 금융 산업의 영업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 포항어음 교환소가 1964년 12월 5일 「법무령 제81호」가 공포되면서 영업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 후 1969년 4월 지방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대구은행 포항지점의 개설을 보았으며, 1971년 12월에는 서울신탁은행이 개설되었으며 농업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등이 개설되면서 포항 금융산업의 성장기를 맞게 되었다.

2. 포항금융의 성장기

포스코가 가동함에 따라 철강업체와 협력업체가 철강공단에 입주하여 매년 예금이나 대출금에 있어서 엄청난 숫자로 거래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1970년에 예금이 1,936백만원, 대출 1,221백만원인데 1976년에는 예금 15,166백만원, 대출 11,263백만원으로 예금은 783%, 대출은 922%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기관별 예금 및 대출금 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금										
	총액	정기	통지	새생활	정기적금	국민저축조합	새농민	당좌	보통	별단	기타
1969	2,103	755	29	61	457	7	–	112	415	97	79
1970	1,936	820	21	98	397	6	1	139	371	134	129
1971	3,278	1,070	20	119	681	11	40	181	606	381	169
1972	3,919	1,123	22	178	833	16	49	195	942	296	265
1973	5,616	1,311	31	341	1,233	25	169	400	1,342	378	359
1974	8,123	2,038	35	158	1,861	22	416	867	1,781	542	403
1975	10,723	2,640	161	30	2,830	15	38	912	2,136	770	1,191
1976	15,166	3,592	672	2	4,043	15	364	1,122	2,925	1,233	1,226
조흥은행	1,924	491	131	–	549	7	103	127	363	268	3
한일은행	3,373	1,141	11	–	1,034	1	–	521	433	178	54
중소기업은행	1,511	262	18	1	552	3	–	102	278	139	156
국민은행	1,470	332	53	–	327	2	–	22	370	70	163
대구은행	1,608	347	28	1	434	1	–	94	276	179	248
서울신탁은행	1,371	334	16	–	369	–	–	42	319	81	210
제일은행	1,246	214	48	–	383	–	–	70	254	201	76
주택은행	1,468	120	3	–	31	–	–	–	59	27	228
영일군농협조합	2,195	351	359	–	364	1	261	144	537	90	88

구 분	대출금										
	총액	농림	수산	광업	제조업	건설 전기가스	상업	운수 창고업	서비스업	지방 공공단체	기타
1969	1,318	330	56	2	531	15	97	114	40	41	92
1970	1,221	49	62	8	632	15	206	73	70	6	100
1971	2,117	417	36	3	789	138	333	94	36	31	240
1972	2,960	23	120	16	1,369	53	703	87	97	–	491
1973	3,900	505	269	16	1,652	4	660	162	115	5	452
1974	6,243	1,076	3,032	54	2,589	54	727	277	176	14	543
1975	7,409	643	385	70	3,487	66	1,9	389	354	7	365
1976	11,263	1,495	247	111	4,014	909	1,9	629	761	614	482
조흥은행	832	2	43	–	283	32	112	62	88	–	110
한일은행	2,430	5	19	12	1,521	744	17	35	67	–	10
중소기업은행	1,601	–	8	74	1,116	20	249	110	24	–	–
국민은행	1,562	–	5	8	340	51	575	167	46	–	–
대구은행	780	–	54	–	184	38	463	27	14	–	–
서울신탁	807	–	68	4	280	4	124	71	87	–	169
제일은행	748	2	3	13	229	20	239	157	65	–	20
주택은행	851	–	–	–	61	–	3	–	–	614	173
영일군 농협조합	1,657	1,486	47	–	–	–	124	–	–	–	–

한편 대출금의 유형을 살펴보면 1970년에는 제조업, 상업, 창고운수업, 서비스업, 수산업의 차례로 되어 있었는데, 1976년에는 제조업, 상업, 농업, 건설전기가스, 서비스업, 창고운수업 순으로 되어 있어 포항지역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꾸준한 성장으로 포항은 산업도시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다.

3. 포항금융의 발전기

포항은 1979년 2차 석유파동 이후 국제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대량생산에 따른 이윤추구보다 고부가가치 상품개발로 전환해 질적생산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포항의 기업들은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자동화 등 신예화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어 경영합리화를 추구하였다.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의 자율체제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금융자유화와 개방화 정책을 수립·추진한 것은 당시 만성 인플레이션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시중은행의 민영화는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금융산업의 관 주도 금융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1980년대에는 산업도시에 걸맞는 한국산업은행 지점의 개설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지점이 개설됨으로써 포항이 경북지역 금융의 중심지로써 역할을 하게 되었다.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상호신용금고, 보험,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이 개설되면서 포항은 금융의 융성기를 맞게 되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증권, 파이넨스 등의 금융이 포항에 진출함으로써 기업에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었다.

포항의 지역금융은 1980년 초를 전후해서 침체국면이 있었으나, 1983년에 포스코가 완공됨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활발한 투자를 하고, 철강기업들이 공단에 입주함에 따라 금융업이 발달하였다.

금융기관 현황

구 분	점포수	직원수			노동직	건평	설립년월일
		계	남	여			
1978	–	333	223	110	–	650	–
1979	–	359	243	116	–	647	–
1980	16	429	292	137	–	088	–
1981	17	484	313	171	30	3,751	–
1982	18	547	357	190	21	3,604	–
1983	17	537	346	191	19	4,143	–
1984	18	532	335	197	11	5,455	–
1985	1	589	360	229	1	5,317	–
조흥은행	1	46	25	21	–	192	1921.11.10
한일은행	1	51	31	20	–	312	1942. 8. 1
중소기업	1	32	19	13	–	207	1962.11.20
국민은행	1	66	40	26	–	795	1963. 2. 1
대구은행	1	46	41	15	–	519	1969. 4. 3
서울신탁	1	31	17	14	–	235	1970.12.20
제일은행	1	39	19	20	–	587	1975. 7. 5
주택은행	1	54	30	24	–	53	1976.10. 8
외환은행	1	50	32	18	–	1,578	1977. 2. 7
한국상업	1	35	22	13	–	115	1979.11. 6
한일은행	1	30	21	9	–	96	1974. 4.25
포항농협	3	69	47	22	–	–	1969.12.30
수산업협동조합	2	24	15	9	1	–	1971. 3.16
대구은행죽도동지점	1	16	11	5	–	–	1985.11.22

1975년 9월에는 제일은행 포항지점이 개설되었고 한국외환은행 포항출장소가 1977년 2월에 개설, 영업을 시작하다가 1979년 6월에 포항지점으로 승격되었다.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주택은행 포항지점은 1978년 10월에 포항출장소를 개설하였다가 1979년 지점으로 승격되었으며, 한국상업은행이 1979년 11월에 지점을 개설하여 영업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한국산업은행 포항지점, 포항축산협동조합이 농협에서 분리되어 1983년 9월부터 일반 신용업무의 개시를 보게 되어 금융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금융기관 예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계	정기예금	통지예금	정기적금	상호주택부금	기타	
1978	35,238	27,912	5,710	1,89	7,693	–	12,820	7,326
1979	47,530	37,788	6,809	2,71	12,462	–	16,246	9,742
1980	65,733	56,307	17,954	3,79	13,371	–	21,003	9,426
1981	84,696	64,671	28,061	2,83	14,861	2,895	16,171	20,025
1982	132,696	96,399	30,694	–	15,825	4,404	45,476	36,210
1983	142,529	104,685	31,808	–	14,904	6,901	51,072	37,844
1984	160,039	110,302	34,722	–	12,666	8,221	54,693	49,737
1985	196,865	147,211	30,105	–	16,556	15,360	85,190	49,654
조흥은행	16,043	11,989	2,629	–	1,994	62	7,304	4,054
한일은행	25,798	16,388	5,394	–	2,748	200	8,046	9,410
중소기업	9,279	6,803	2,653	–	421	2,356	1,373	2,476
국민은행	23,438	19,594	1,211	–	886	5,824	11,673	3,844
대구은행	16,116	9,325	2,827	–	534	2,888	3,076	6,791
서울신탁	11,768	10,397	949	–	439	–	9,009	1,371
제일은행	12,424	9,285	1,618	–	1,149	–	6,518	3,139
주택은행	23,598	21,052	1,054	–	1,378	3,916	14,704	2,546
외환은행	11,939	9,237	3,420	–	885	–	4,932	2,702
상업은행	12,070	9,130	1,938	–	1,453	–	5,739	2,940
포항농협	10,247	7,871	4,354	–	3,101	44	372	2,376
포항수협	5,139	3,335	538	–	600	11	2,186	1,814
한일은행동촌지점	17,480	11,703	1,159	–	959	39	9,546	5,777
대구은행죽도동지점	1,516	1,102	361	–	9	20	712	414

포항은 한국은행 포항지점이 1984년 12월 17일 개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모든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 모두가 지점이 개설되어 바야흐로 금융산업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포항의 금융기관 현황을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매년 지점망의 개설과 업무의 확대로 매년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85년 포항시내 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을 보면 196,865백만원으로 1980년 65,733백만원으로 3배가량 증가하고 있어 산업도시화에 의한 금융도시의 변모를 과시하고 있다. 한편 예금 중 장기성예금인 정기예금의비중이 높아 은행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예금은행 예금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 연도	포 항	전 국	비 중
1984	1,738	279,251	0.62
1985	1,988	310,226	0.64
1986	2,526	359,258	0.72
1987	3,194	457,204	0.70
1988	3,927	574,847	0.68
1989	4,652	669,177	0.70
1990	5,522	840,541	0.66
1991	6,627	985,079	0.67
1992	7,565	1,072,465	0.71

※ 자료 : 경북 동해안 지역경제동향, 한국은행 포항지점 1993

예금은행 대출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 연도	포 항	전 국	비 중
1984	1,315	278,789	0.47
1985	1,686	338,107	0.50
1986	2,060	390,986	0.53
1987	2,523	430,958	0.59
1988	3,111	488,054	0.64
1989	4,326	625,478	0.69
1990	5,153	740,286	0.70
1991	7,301	894,156	0.82
1992	8,424	1,027,970	0.82

1986년에는 한국산업은행 포항지점이 설치되면서, 산업도시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이후 신한은행, 대동은행 등의 시중은행의 지점이 개설되면서 지역금융이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포항지역의 예금은행을 보면 1992년에 7,565억으로 전국예금고의 0.71% 차지하고 있으며 1984~1990년 사이에 317.7% 성장하여 평균성장율 52.9%의 고도성장을 보이고 있어 동기간 중 전국 연평균 성장률 50%를 웃돌고 있다.

포항지역은행의 대출금은 1984년에 1,315억원에서 1992년에는 8,424억원으로 64.06% 증가를 나타냈다. 더구나 대출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여 1992년에는 전국비중 0.82%를 차지하여 자금의 역내 유출이 많아지고 있다.

포항의 예대율(예금대출율)은 1984년 78.9%에서 매년 증가하여 1992년에는 105.4%로 다른 도시보다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역외(域外)유출이 서울, 부산, 대구 특히 공업도시인 울산보다 적은 것이 특징이다. 포항지역 예금 및 대출의 전국비중은 인구비례를 감안할 때 매우 높으며 대출(貸出)의 경우 더욱 두드러졌다.

포항지역 예대율

(단위 : 억원, %)

구분 / 연도	예 금	대 출	비 율
1984	1,738	1,315	79.8
1985	1,988	1,686	80.9
1986	2,586	2,060	77.6
1987	3,194	2,523	78.9
1988	3,927	3,111	84.9
1989	4,652	4,326	92.3
1990	5,522	5,153	100.1
1991	6,627	7,301	99.6
1992	7,565	8,424	105.4

한편 자금사정을 보면 어음교환과 어음부도율(不渡率)은 시중자금융통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어음교환액(交換額)은 경제성장에 따른 상품거래 증가와 상품의 신용거래 증가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86년 포항지역의 어음교환액은 2,872,433백만원이며, 1992년에는 17조686,721백만원으로 6.2배의 교환규모로 커져 포항지역의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나타내고 있어 포항의 금융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어음교환은 1984년을 고비로 조금씩 하락하다가 1991년부터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포항지역 어음교환 및 부도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어음 교환액	부도율	
		포 항	전 국
1984		0.56	0.09
1985		0.20	0.07
1986	2,872,433	0.24	0.10
1987	3,607,215	0.23	0.09
1988	5,136,829	0.13	0.04
1989	6,521,068	0.10	0.04
1990	4,080,252	0.17	0.04
1991	11,660,962	0.27	0.06
1992	17,686,721	0.47	0.12
1995	15,246	0.86	0.20
1996	17,477	0.45	·
1997	174,025	0.89	·

포항은 어음부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아 포항지역의 자금사정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열악하다. 이후 1995년 중 포항지역의 어음부도율은 0.86%로 전국 평균인 0.2%를 4배 이상 웃돌았으나 96년에 들어서면서 0.45%로 전국평균보다 낮아지기도 했으나 1997년에는 0.89%로 다시 올라갔다.

금융기관 점포수 추이

(단위 : 개, %)

구분 / 연도	´90		´91		´92		´93		´94		´95.상	
	포항	전국	포항	전국	포항	전국	포항	전국	포항	전국	포항	전국
총 계	95 (0.6)	16,611	107 (0.6)	17,819	113 (0.6)	19,510	121 (0.6)	21,183	129 (0.6)	22,695	146 (0.6)	23,894
예금은행	26 (0.7)	3,890	31 (0.7)	4,379	34 (0.7)	4,810	39 (0.7)	5,320	42 (0.7)	5,819	59 (1.0)	6,115
일반은행	15	2,333	20	2,677	23	2,967	25	3,317	25	3,682	42	4,383
특수은행	11	1,557	11	1,702	11	1,843	14	2,003	17	2,137	17	1,732
비 통화 금융기관	69 (0.5)	12,721	76 (0.6)	13,440	79 (0.5)	14,700	82 (0.5)	15,863	87 (0.5)	16,876	87 (0.5)	17,779
개발기관	1	38	1	42	1	46	1	49	1	49	1	50
투자기관	2	132	2	142	2	178	2	189	2	189	2	215
저축기관	57	4,894	58	4,912	58	4,995	59	5,037	62	5,037	62	4,989
보험기관	9	7,657	15	8,344	18	9,481	20	10,588	22	10,588	22	12,525

※ 주 : 비통화금융기관 : 개발기관, 투금, 투신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생명보험회사

1990년에 와서는 포항의 은행 점포수는 계속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4년 말 포항지역 전 금융기관 점포수는 129개로 전국대비 0.6%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금은행 점포수는 42개로 경북의 245개로 17.1% 전국의 0.7%를 차지하고 있다. 비통화금융기관 점포수는 87개로 경북의 1,062개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0.5%를 차지하고 있다. 그 후 1998년에는 금융기관 168개 증가했는데 상호신용금고 3개 증권회사 12개로 증가했다.

한편, 1994년 말 금융기관 총 수신은 2조 5,119억원으로 전국의 0.6%를 차지하고 있다. 예금은행 수신은 9,630억원으로 전국대비 0.6%의 비중을 나타냈으며 비통화 금융기관 수신은 1조 5,489억원으로 전국대비 0.6%를 차지하고 있다.

총여신은 2조1,975원으로 전국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금은행 여신은 1조 461억원으로 전국대비 0.7%이다. 금융기관 총여신 중 예금은행의 여신비중은 52.4%로 전국평균 46.4%보다 6.0% 높은 것이 포항지역 금융의 특징이다.

4. 포항금융의 변혁기

1990년대 금융시장 자율체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였으며, 1991년에 금리 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1993년에는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였던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므로 금융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금융자유화, 개방화는 결실을 보지 못한 채 1997년 12월 IMF의 위기가 닫쳐왔다. 금융계 태풍인 IMF체제는 부실금융기관 퇴출로 14개의 금융회사 줄어 19개 회사로 정리되었다. 이로 인한 정부는 160조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포항지역도 예외 없이 은행이 M&A로 되므로 지역금융의 혼란이 야기되고, 지역기업의 자금압박이 가중되어 기업 활동에 많은 애로를 초래했다. 한국은행 포항지점은 꾸준히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이 되다가 2002년에 본부로 개편되었다.

2006년 5월 감사원이 포항본부, 구미, 진주, 순천지점 등을 폐쇄하는 조직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포항본부를 지점으로 축소하며, 2010년에는 폐쇄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지역주민, 경제단체, 관은 반대의 의견을 한국은행 총재에게 전달하고 부당성을 관계 요로에 건의하였다.

특히 한국은행 포항지점 폐쇄로 인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폐쇄부당성에 대해 논리적인 대응을 하기도 하였다. 경상북도와 대경연구원 논리전개,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한국은행 포항본점은 존치하기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금융기관 시중은행 현황

은행 / 년도	조흥은행	우리은행 (한빛)	제일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하나은행 (서울)	국민은행 (주택)	외환 은행	기타은행	
									대동	동화
1997	2	(9)	3	3	1	1(4)	4(2)	2	4(2)	2
1998	3	8	2	2	1	1	4	1	16	–
1999	3	–	2	3	1	1	4	1	11	–
2000	3	–	2	2	1	1	5	1	16	–
2001	3	–	2	2	1	1	5	1	16	–
2002	3	9	2	2	1	4	9	1	–	–
2003	3	9	2	2	1	3	9	1	–	–
2004	3	9	2	2	1	3	8	1	–	–
2005	4	9	2	2	1	3	7	1	–	–
2006	–	9	2	7	1	3	8	1	–	–
2007	–	9	2	7	1	3	8	1	–	–

지방은행 특수은행 현황

은행 / 년도	지방은행			특수은행			기타		
	대구	부산	경남	기업	농협	수협	한국산업	장기신용	외국은행
1997	13	1	1	2	9(1)	3	1	(2)	(1)
1998	10	1	–	2	8	1	1	–	–
1999	10	1	–	2	7	1	1	–	–
2000	10	1	–	1	9	1	1	–	–
2001	10	1	–	2	7	1	1	–	–
2002	10	1	–	2	8	1	1	–	–
2003	12	1	–	2	8	1	1	–	–
2004	13	1	–	2	7	1	1	–	–
2005	13	1	–	2	7	1	1	–	–
2006	14	1	–	3	7	1	1	–	–
2007	15	1	–	3	8	1	1	–	–

1997년 말 IMF의 외환위기로 인해 다른 사업에 비해 가장영향을 미친 분야가 금융이다. 우리나라경제의 위기로 부실은행들이 정리되고 통합이 이루어졌다. 1997년 당시 포항에 입점한 은행은 73개였는데 1998년 59개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2000년대 와서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경제회복으로 인해 2007년에는 62개의 은행이 포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어 음 교 환

(단위 : 10억원)

구분	징수	금액	장당평균금액	부도액	부도율
1997	8,322	174,025	2,092	155,518	0.89
1998	6,154	142,878	2,382	207,176	1.45
1999	5,811	130,743	2,248	35,640	0.03
2000	5,886	12,544	2,047	50,299	0.42
2001	5,942	9,544	1,608	3,044	0.32
2002	5,880	8,969	1,524	20,183	0.23
2003	4,059	7,971	1,607	13,808	0.17
2004	4,491	7,951	1,711	21,607	0.27
2005	4,396	8,800	2,002	13,531	0.15
2006	4,186	8,118	1,940	21,489	0.26
2007	4,139	8,235	1,999	31,200	0.44

포항시에서 영업하는 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일부은행이 경영부실로 은행이 퇴출되고 다른 은행에 통합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2007년 말 현재 포항에서 영업하고 있는 은행 72개중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15개 지점망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은행이 8개, 농협중앙회 8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은행과 농협중앙회는 포항시의 예산 창구를 맡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을 치러 포항시금고로 지정 받았으며 향토색이 강한 은행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은행이라 할 수 있다.

어음교환 규모와 부도율은 해당지역의 금융상황을 잘 나타내는 체감지표이다. 1997년에는 어음매수는 8,322매이며 어음교환액은 174,025천원으로 매당 평균금액 2,092원이며 부도액은 155,518천원으로 부도율이 0,89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IMF 외환위기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이후 부도율은 1998년에는 1.45로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으나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부도율은 경제상황이 급변한 만큼 변동한다. 따라서 포항지역 높아진 부도율은 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렵고 지역경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경제회복과 더불어 어음 부도율 2005년에는 0.15 급감되어 건전한 기업경영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후 2007년에는 0.44로 증가하고 있어 기업자금 사정의 곤란을 겪고 있으나 IMF이후 은행의 구조조정 및 대출관행이 엄격함과 재무구조의 건전성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금융기관을 2008년 후반 미국에서 불어온 금융대란을 잘 견디고 있다. IMF 때 보다는 기업은 물론 은행들이 자금 운영을 건전하게

잘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IMF시절 같은 위기는 없으며 견실한 은행 경영을 합리적·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5. 포항의 금융기관

1) 중앙은행(한국은행 포항본부)

한국은행 포항지점은 1974년 12월 5일 한국은행 대구지점 포항주재사무소로 개소되어 상원동 조흥은행 포항지점에 임시화폐 보관점을 지정 영업활동을 하여오다가 한일은행 포항지점에 이전하였으며, 그 후 1979년 12월 12일 기획 123-767에 의거 한국은행 주재원의 주재원명칭이 주재사무소로 변경하였다. 포항지점은 지점개설 준비작업을 착수하여 1984년 3월 29일 제8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점설치 통과 후 상도동 10-2에 동년 12월 17일에 개점하였으며 초대지점장에는 문정영이 되었다. 한국은행은 해방과 함께 통화신용의 통제권한을 가진 중앙은행 설립이 요청되어 1950년 5월 1일 한국은행법이 제정되고 6월 12일 조선은행으로부터 중앙은행 업무를 인수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포항상공회의소의 수차례에 걸친 건의에 의한 결실로 한국은행 포항지점이 개설되었다.

한국은행 포항지점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경북 동해안 지역 경제동향≫이란 책자를 발간하여 금융·경제동향을 신속히 파악 지역경제정책 수립과 기업경영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 포항의 미래를 위해 <지방화 세계화시대의 포항경제발전방향> 논문을 발간하였고, "환동해 경제권시대의 도래와 지역경제의 과제"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IMF체제로 지점의 폐쇄 논의도 있었으나 지역주민의 건의에 의해 현재 존치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폐쇄 논의는 계속 되어 현제까지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포항본부이다.

2) 특수은행

(1) 한국산업은행

1906년 지방농공업자에 금융지원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목적아래 3월 농공은행조례가 제정되어 1906년 6월 농공은행이 설립되었으며 그 후 급격히 늘어나는 산업의자금수요 공급을 위해 6개 농공은행을 통합하여 특수정책금융기관의 설립이 논의돼 1918년 6월 조선식산은행령이 공포되므로 설립되었다. 그 후, 1954년 1월 18일 한국산업은행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산업은행이 개설되었다.

한편 포항지점은 1986년 4월 18일 해도동 현 위치에 개설, 초대 지점장은 정점식이다. 포항지점의 설치는 산업도시에 걸맞는 은행으로 이 지역 기업의 자본조달을 원활히 수행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지점이다.

(2) 중소기업은행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체제를 정비 중소기업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도모코자 1961년 농업은행 점포를 모체로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포항지점은 1962년 10월 30일 상원동 260-5에서 개설되었으며 1967년 8월 1일 상원동 466-31로 이전하였다가 1974년 7월에 남빈동 417-18로 신축이전 하였다. 초대 지점장에 진근수가 취임했다.

(3) 한국주택은행

1967년 3월 30일 한국주택금고법이 제정・공포되어 그해 7월 10일 한국주택금고가 설치되었다가 1969년 한국주택은행법이 공포됨으로써 설치된 은행이다.

한국주택은행 포항지점은 1978년 10월 6일 대구지점 포항출장소로 죽도동 96-45에서 개소되어 영업을 하던 중 1979년 6월 8일 지점으로 승격되어 1984년 1월 9일 죽도동 96-70 현재의 건물로 신축이전 하였다.

주택은행이 설치됨으로 포항지역의 주택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초대 지점장에는 권인혁이 취임하게 되었다.

현재 주택은행은 죽도동지점, 흥해지점, 오천지점을 두고 주택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2001년 국민은행에 합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일반시중은행

(1) 국민은행

서민금융의 전담기구로 1963년 2월 1일 설립되었는데 두개의 무진회사를 합병하여 서민의 전담기구로서 상원동 466-3에 포항지점이 동시에 개설되었다. 초대 지점장은 유근수이다.

그 후 포항남지점, 죽도동지점, 두호동지점, 포항남지점, 오천점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일반서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하고 있다.

서민을 주 고객으로 IMF 외환위기 때 가장 피해가 적었으며 영업활동도 왕성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의 호응도가 높다. 2001년에는 주택은행을 흡수・합병했다.

(2) 한국외환은행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동원을 위해 외자도입이 본격화됨으로써 1967년 1월 30일 외국환업무와 무역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은행으로 설립되었다. 포항의 경우 1977년 2월 7일 대흥동 606-1에서 포항출장소로 개소하였으며, 포항지점으로 승격된 것은 1979년 6월 7일로서 금융활동을 시작하였다.

1984년 4월 23일 죽도1동 112-114의 현 건물로 신축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초대 출장소장은 정성모이다. 현재 외환은행은 일반시중은행으로 대도지점 포항지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3) 하나은행

순수한 민간자본에 의해 설립된 지방은행인 서울은행과 한국신탁은행이 합병되어 설립된 은행으로 1971년 12월 20일에 서울은행 포항지점으로 남빈동 523번지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1976년 8월 4일에는 서울은행과 한국신탁은행과의 합병으로 서울신탁은행이라고 개칭하였으며 초대 지점장으로 심위경이 취임하였다. 이후 서울은행으로 개명되었으며 현재 학산타워지점, 흥해지점, 우방타운지점을 갖고 있으면서 1999년 서울은행 합병하였으며 2002년에는 서울은행을 흡수·합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제일은행 포항지점

1928년 제정된 저축은행령에 의해 1929년 7월 1일 조선식산은행의 저축에 관한 예대금 업무를 인수 저축예금을 전담하는 조선저축은행으로 발족하였다.

제일은행 포항지점은 1975년 9월 죽도1동112~114에서 포항지점을 개설하여 1981년 8월 24일 죽도1동 44-1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고 이전하였으며 초대지점장에는 박기진이 취임하였다.

(5) 우리은행 (한빛은행)

1899년 1월에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은 1912년 4월 1일 한성공동창고 주식회사를 합병 1906년 2월 13일 개점하였다. 이후 상업은행으로 개명하였으며 한국상업은행 포항지점은 1979년 11월 9일 죽도2동 44-8의 위치에서 첫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 후 1983년 6월 7일 죽도2동 47-13 현 위치로 신축이전 하였다. 초대 지점장은 김동헌이다. 이후 영업활동을 넓혀 지곡출장소를 개설하였으며 IMF로 인해 한일은행과 합병되어 한빛은행으로 재출발 하였으나 2000년에 우리은행으로 2001에 다시 평화은행을 흡수 합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6) 대구은행 포항본부

대구은행 포항지점은 1969년 4월 3일 상원동 442-13에 포항지점을 개설하여 지방은행으로써 대구지역 및 경북지역의 금융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72년 9월 11일 남빈동 415-15에 부지를 확보 새 지점 건물로 신축 이전하였다. 초대 지점장으로 정지영이 취임하였다. 한편 업무의 증대와 예금확보를 위해 해도동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1987년 7월에 현 죽도1동에 자리를 옮겨 이전 개설하였다. 초대 지점장은 이동일이며 현재 재임 중에 있다.

대구은행은 지방은행으로써 포항지역에서는 지역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단지점의 8개의 출장소를 두고 있는 지역밀착형 은행이다.

(7) 신한은행(조흥은행)

1897년 2월에 설립된 한성은행이 조흥은행의 전신이며 시중은행으로써 포항에서 가장 먼저 개설된 은행이다. 현재 명칭인 조흥은행 포항지점으로 명명된 것은 1943년 10월 1일이며 1971년 4월 9일부터 현재의 상원동 449-1에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초대지점장은 김기련이 취임하였다. 그 후 영업활동을 넓혀 포항남지점을 개설 · 운영하고 있다가 신한은행에 의하여 합병되었다.

(8) 한일은행(한빛은행)

1932년 12월 16일에 창립된 조선신탁주식회사와 1937년 8월 14일 창립된 조선중앙무진회사가 통합되어 시작되었으며 1942년 8월 1일 조선무진공사은행 포항지점으로 포항읍 111번지에서 개설되었다.

주식회사 한일은행 포항지점으로 개명되어 정식으로 승인된 것은 1960년 1월 1일자이며 현재의 상원동 441-1에 위치한 신축 건물로 이전한 것은 1977년 7월 18일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 은행은 1974년 4월 25일 자로 포항철강공단업체 등을 위해 업무확장으로 간이예금 취급소를 동촌동에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동촌동 지점으로, 그 후 공단지점, 연일지점 개설 · 운영하고 있다. IMF체제 하에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한빛은행으로 개칭 합병되었다.

(9) 기타 시중은행

신한은행은 영업활동이 왕성한 은행이다. 1989년에 출발해서 포항지점, 포항공단지점을 개설했다. 같은 해 출발한 대동은행은 오천지점, 포항중앙지점, 포항지점, 흥해지점망을 구축하였으나 IMF체제 하에 퇴출된 은행이다. 동남은행은 포항지점, 장성동지점을 개설했으며 한미은행도 포항지역에 진출해 있다.

4) 비은행 금융기관

(1) 저축은행

1972년 8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과거 사금융의 형태로 성행하던 사설 무진의 계업무와 서민금고의 일수 및 소액신용대출 등의 업무가 정비 개선되는 한편 1973년에는 동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가 제도금융기관으로서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지역의 상호신용금고 1호인 포항상호신용금고는 1969년 5월 27일 상원동 448-1에서 포항무진합자회사로 설립되어 1971년 4월 9일 주식회사 포항무진으로 변경 등기되었다가 1972년 8월 2일 법률 제2333호가 공포되자 1973년 1월 1일 포항상호신용금고로 개칭되어 가장 먼저 업무를 개시하였다.

1976년 9월 1일 상원동 466-16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1983년 11월 7일 죽도동 48~23의 현재의 사옥으로 신축이전 하였다. 그 후 영업망을 확장해 중앙지점을 개설했으며 현재 경상북도 상호금고 중 1996년에는 당기순이익 제3위를 기록한 기업이다. 그러나 IMF 금융체제하에 어려움을 극복 못하고 부도 처리되었다. 상호금고는 저축은행으로 개명하였으며 대아상호저축은행, 삼일상호저축은행이 포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① 대아상호저축은행

1982년 9월 1일 황대봉 및 지역상공인 10명의 발기인 대회를 가져 1982년 10월 6일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 1982년 12월 11일 자본금 10억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런데 본 금고의 영업 실적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였는데 1987년에 경북도내 제1위로 부상했으며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자본금을 매년 증가해 20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영업수익의 주주배당을 자제하고 수익자본 전액을 자기자본으로 적립하여 1996년 6월말 현재 166억원에 이르는 신용 있는 기업으로 발전했다.

1996년에는 대원상호금고에서 상호를 그룹명인 대아로 개명했으며 영업기능을 확장하여 포항지점을 개설했다.

업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983년	1984년말	1986년 12월말	1995년말	1996년말
여 신	8,248	11,336	25,537	163,000	197,357
수 신	4,224	10,665	22,691	145,000	171,714
계약고	17,444	24,286	33,430	–	–

위와 같이 급성장을 해 여신은 1996년 말에서는 197,357백만원으로 성장률이 23.9배나 달해 다른 기업보다 성장률 면이나 여·수신에서나 단연 앞서고 있다. 1996년 당기순이익은 경상북도에서 단연 제1위이며 현재 사장은 황인철이다. 그러나 IMF를 거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BIS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② 삼일상호저축은행

1969년 5월 26일 죽도1동 135-185에서 법인발기 설립하여 동년 7월 7일 정식으로 개점하였다가 1984년 11월 19일 상원동 466-31(구 포항상의 건물)에 이전하였으며 그 후 단독건물을 신축하여 죽도동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설립자인 강신우의 경영신조인 지역경제발전 기여란 경영철학에 따라 지역사회의 금융자금공급에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이다. 특히 가장 늦게 출발하여 경북도내 20개 신용금고 중 2위의 실적을 나타낸 적도 있었다. 현재 본사에 이전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었으나 IMF이후 금융 불안으로 기업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로 현재 왕성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업 무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년도	1984. 12. 31	1985. 12. 31	1986. 12. 31	1987. 9. 30
여 신	6,233	14,570	17,347	21,566
수 신	6,037	15,400	17,326	20,036

(2) 보험업

개항 이래 일본 및 구미제국의 상인의 쇄도와 더불어 무역량이 증가하자 각국보험회사가 진출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리게 되었다. 일제하에 생보 가입자는 285명인데 그중 5명으로 되어있었던 해가 1911년이며 그 후 해마다 보험가입자가 증가하였다. 일반인은 당시만 하여도 보험에 대한 신인도가 높지 않아 보험가입을 꺼려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보험회사가 많이 발전하였으나 6.25전란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 보험업의 퇴조를 면치 못했다.

1962년 보험업법 보험모집단속법 및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한 법률 등 보험관계 법률의 제정실시로 난립된 보험회사가 정리되어 생명보험의 경우 대한, 동방, 제일, 흥국, 동해생명과 대한교육보험 등 6개 회사로 정비되었다.

그 후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보험이 급성장 하였다. 특히, 1980년에 들어서면서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국민생활이 안정됨에 따라 보험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포항의 경우 생명보험으로 대한, 동방, 동아, 흥국, 제일생명보험회사 영업국, 지점 등이 있으며 동양, 범한, 신동아, 안국, 제일, 해동, 현대, 국제, 대한화재보험의 지점이 개설되었으며, 대한교육보험, 한국자동차보험도 있다. 또한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의 포항지점이 설치되어 보험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있다.

(3) 새마을 금고

마을금고는 서로 돕고 협동하는 우리 고유의 자율적인 협동조합인데, 향약에서 공동정신을 계승하고 서로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마을, 직장단체의 구성원들이 잘 살기 위한 의사로 협동조직을 결성하고 근검으로 저축을 해 자체자금을 조성하고 간편하게 생활자금을 자급 경제생활에 향상을 도모하는 조직이다. 여유자금과 적립기금을 활용하여 구성원의 공공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는 원동력이 마을금고이다.

현재 포항시에는 대도 대신, 대흥, 덕산, 동빈, 두호, 송도, 신흥, 양학, 용흥1동, 용흥2동, 제철, 죽도1동, 죽도2동, 중앙, 청림, 학산, 항구, 해도1동, 해도2동, 환여동, 연일, 오천, 청하, 흥해, 조선내화 등 45개소에 걸쳐 설치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자조적 복지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다.

포항의 새마을 금고는 2007년 현재 34개소이고, 자산액은 346,521백만원이며, 예금액은 804,192백만원이고, 대출액이 417,507 백만원이다. 회원수는 295,207명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지역금융 조직이다.

(4) 증권회사

비통화 금융기관인 증권회사는 소요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체제를 확립하고자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증권거래법 등의 체제개편이 있었다. 그 후 자본시장 육성으로 상장기업이 늘어났으며 포항은 일찍이 1975년 7월 18일에 상원동 443~1에 최초로 개설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면 증권투자에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 창구에 몰리기 시작했다. 증권투자는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므로 서울 집중현상이 있었으나 1990년에 들어서면서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포항지방에 대우증권, 대신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 서울증권, LG증권, 현대증권 등이 진출하여 성업 중에 있다.

IMF체제에 의한 금융대란으로 주가가 폭락되어 1998년에는 증권회사에 고객이 몰려와 항의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1999년에 와서는 주가가 폭등해서 고객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실적이 양호해지고 주식투자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코스피의 지수가 2000을 육박하면서 주식투자의 열기 최고점에 달했다. 2008년 9월부터 불어온 미국말 금융 위기로 주가 폭락으

로 투자자들의 불안 높아졌다. 다행히 최근에 많은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다.

증권투자는 주식의 대중화가 이뤄져 우리 일상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어 일반인의 관심이 크다.

5) 협동조합

(1) 농협중앙회 포항시지부 및 단위조합

포항시 관내 조합수는 40개 조합원수는 20,360으로 포항농협 시지부 1개를 비롯한 12개의 단위조합이 있다. 연중 융자실적을 보면 1997년에는 1,165,559백만원으로 금융자금이 1,076,099백만원, 재정자금 89,460백만원으로 지역금융으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포항수산업협동조합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포항어업협동조합으로 영일어업조합에서 개칭되었으며 1971년 3월 16일부터 신용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80년 3월 11일에 현재 신흥동 698-9의 신축 건물로 이전하였다.

현재 남부, 북부, 죽도 지점이 개설되어 신용업무를 보고 있으며 어민지도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3) 포항축산업협동조합

포항축산협동조합은 1965년 9월 27일 해도동 412-17에서 농림부령에 의해 개설되었다. 1981년 1월 1일에 농협에서 분리되어 축산협동조합으로 정식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9년 현재는 농협과 합병되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4) 포항신용협동조합

1973년 8월 2일 재무부인가 9-34로 동년 8월 18일 대흥동 719번지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 후 1974년 8월 8일에는 학산동 116번지로 이전하여 업무를 하다가 1977년 6월 7일 대신동 74-13으로 이전하여 대지 114평 건물 3층 건평 176평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특히 1977년부터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고 있다. 1978년 2월 27일에는 동부 예금취급소를 개점하였으며, 1979년 5월 24일에는 서부 예금취급소를 개점, 1983년 9월 1일에는 남부 예금취급소를 개점하여 그 영업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1973년 출발 당시에 자본금 36만6백6원으로 조합원은 134명이었다. 그 후 1980년에는 수신 13억 8천8백만원, 여신 11억4천7백만원이며 1985년 수신 51억 7천8백만원 수신 91억4천만 원이다. 한편 조합원을 위한 서민아파트 공급으로 포항신협아파트 20평 36세대를 준공하고 2차로 중부아파트 24세대 23평형을 준공하는 등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조합원의 교육을 위한 강좌 및 회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초대는 전성만 이사장이며 포항시내 16개의 신협점포가 있으며 직장별 신협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IMF체제 하에 신협은 존폐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정부의 건전한 금융정책에 따른 기준 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6년 신협의 자산액은 352,239백만원 예금액 326,058백만원 대출 159,596백만원으로 조합원수는 60,86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포항시, ≪시세일람≫, 포항시, 1961.
송기철, ≪경영사≫, 1974.
경제기획원, <도 · 소매업센서스 보고서>, 1976 · 1979.
포항시, ≪포항통계연보≫1978~2009.
한영광, <재래시장의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 포항대학논문집, 1978.
한영광, <동해지역의 중심항으로서 포항유통산업의 개발전략>,포항대학논문집, 1981.
김동기, ≪현대마아케팅원론≫, 1986.
한국은행 포항지점, <경북 동해안 지역경제 동향>, 1993.
한영광, <21세기 환동해경제와 교통체제의 전망>, 포항상공회의소, 1994.
한영광, <환동해시대의 도래와 지역경제과제>, 1996.
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97.
포항대학 사회경제연구소, <죽도시장 활성화 종합계획>,2001.
이석희, <경북지역전략산업의 혁신 역량분석과 지역신시스템(RIS) 구축방안>, 대구경북연구원, 2001.
대구경북연구원, <경북의 한국은행본보 존치이유>, 2008.
포항상공회의소,≪포항상공회의소50년사≫